

10대를
위한

나의 첫 시 쓰기 수업

★ 글쓰기 활동 노트 ★

학생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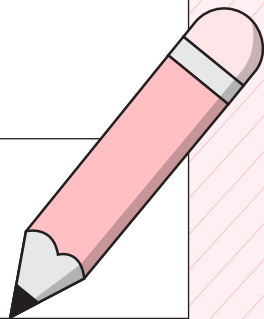


차례

잠들어 있는 상상력 깨우기	· 2
일상을 뒤집어 보며 창의력 키우기	· 4
엉뚱한 단어로 기발한 문장 만들기	· 6
일기로 시 쓰기	· 8
스웍 넘치는 힙합 가사 쓰기	· 10
나는 단어 수집가	· 12
저자의 말	· 14



다른출판사 블로그에서
학생용/교사용 독후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
(blog.naver.com/darun_pub)





수업 1

잠들어 있는 상상력 깨우기

1. 아래는 학생이 쓴 짧은 시입니다. 어떤 상황을 묘사한 것 같나요?
시의 제목을 자유롭게 상상해 보고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.

[작품 1] 밤바다는 환하게 금이 갔다

[작품 2] 처음은 아닌데 왜 이렇게 설레지

[작품 3] 그들에 대한 나의 기대가
너무 큰 것일까?
나에 대한 그들의 착각이
너무 큰 것일까?

[작품 4] 조금 멀어지면 바로 끊긴다
우리도 그렇다

→ 학생들이 쓴 시의 제목이 궁금하다면 책 95~97쪽으로

2. 김춘수 시인의 <꽃>은 널리 알려진 시입니다. 이 시의 단어를 바꾸어 새로운 시를 만들어 보세요.

_____은 모두

_____이 되고 싶다

_____는 _____에게 _____는 _____에게

_____이 되고 싶다



일상을 뒤집어 보며 창의력 키우기

1. 평범한 일상을 묘사한 문장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. 아래의 문장을 뒤집어 기발한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.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창의력을 키울 수 있어요.

① 신발을 신는다. → 신발이 내 발을 삼킨다.

② 나는 신발을 신고 너에게 간다. → 신발은 나를 끌고 너에게 간다.

③ 햇볕이 좋아서 엄마가 빨래를 널었다. → 엄마가 빨래를 널어서 햇볕이 좋았다.

④ 빌딩들 사이로 붉게 노을이 진다. → _____

⑤ 저녁이 가까워지자 바다 너머로 해가 진다. → _____

⑥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온다. → _____

2. 주변을 관찰해 평소 당연하게 여긴 것들을 한 문장으로 아래에 기록해 봅시다. 그리고 이를 기발한 문장으로 바꾸어 보세요.

① 나는 마스크를 쓴다. → 마스크가 나에게 입맞춤을 한다.

② _____ → _____

③ _____ → _____

④ _____ → _____

⑤ _____ → _____

⑥ _____ → _____

3. 만든 문장을 바탕으로 3행 이상의 시를 써봅시다.

→ '마스크'를 주제로 쓴 시가 궁금하다면 책 76쪽으로



수업 3

엉뚱한 단어로 기발한 문장 만들기

나무	무릎	보다	슬프다
거미	지문	듣다	즐겁다
바람	뼈	만지다	불쾌하다
태양	손톱	때리다	편안하다
강	눈동자	기대다	두렵다

1. 낯선 표현은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.
표의 단어들을 자유롭게 조합해 기발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.

① 바람이 남긴 지문을 보며 슬프다.

② 강의 뼈를 만지며 슬프다.

③ _____

④ _____

⑤ _____

2. 좋아하는 단어로 표를 만들고 기발한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.

(물건)	(생물)	(감정)	(행동)

3. 참신한 문장 안에 말하고자 하는 의미까지 잘 담겨 있다면 좋은 시라고 할 수 있겠죠? 만든 문장들을 3개 이상 연결해 한 편의 시를 써봅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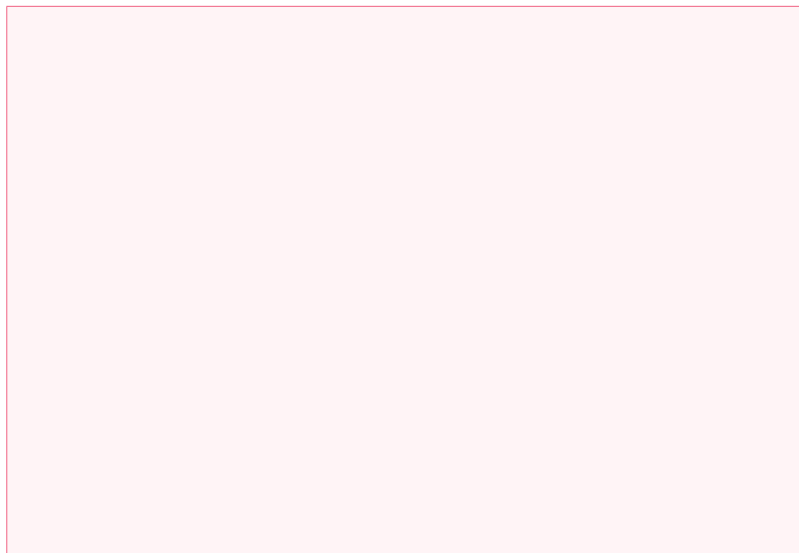


수업 4

일기로 시 쓰기

1. 최근에 경험한 일이나 생각, 감정을 솔직하게 써보세요.

- 2.** 쓴 글을 시로 바꾸어 보세요. 거창하게 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.
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내듯 비밀스럽게 표현해 보세요.



- 3.** 쓴 시를 다른 친구들과 바꾸어 읽으면서 무엇에 대해 쓴 글인지 서로
맞혀 보세요. 그리고 멋지게 느껴지는 표현을 골라 보고, 그 이유에
대해서도 써보세요.

→ 일기로 쓴 멋진 시를 읽고 싶다면 책 171~175쪽으로

스웱 넘치는 힙합 가사 쓰기

1. 다음은 학생이 쓴 랩 가사들입니다. 그런데 가사를 읽어 보면 어딘가 아쉬워요. 첫 번째 가사는 단어들의 각운이 통일되지 않아 '라임'이 살아 있지 않고, 두 번째 가사는 어떤 의미인지 와닿지 않지요. 단어를 적절하게 바꾸어 봅시다.

가사 1) 미세먼지를 피해 집으로 숨고자 노력했어
 꽃가루로 가려운 나의 눈동자 긁었어
 두꺼운 가면을 써 미세먼지 꽃가루 저리 가
 너희는 고작 우릴 괴롭히는 갖은 위선일 뿐

가사 2) 너는 된장 공장의 공장장
 사람들은 선호하지 간장
 너는 올라섰지 간장 위에 선발대
 세상은 잊지 너를 네가 패할 때

- 2.** 나만의 랩에 쓸 단어를 떠올려 보세요. 랩의 주제가 되는 중심 단어와 리듬감을 살려 줄 라임 단어를 아래에 정리해 보세요.

예시)

중심 단어 : 좌절

라임 단어 : 학교, 종교, 궤적과, 불어와

중심 단어: _____

라임 단어: _____

- 3.** 미리 준비한 단어들을 조합해 네 줄 이상의 랩 가사를 써보세요.

예시) 왼쪽을 바라보면 절이 아니라 좌절한 학교

오늘도 펼친 수학의 정석은 신성한 종교

그러나 떨어진 모의고사 성적이 그리는 궤적과

인 서울 앞에 얹어진 우릴 위로하는 바람 불어와

→ 친구들이 만든 랩이 더 궁금하다면 책 121~140쪽으로

나는 단어 수집가

1. 감정 단어를 많이 기억해 두고 있으면 풍부한 표현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좋아하는 단어를 틈틈이 자유롭게 기록하고, 글을 쓸 때 활용해 보세요.

[슬픔, 분노]

[사랑, 애정]

[두려움, 불안함]

[기쁨, 즐거움]

[꿈, 희망, 기대]

[부끄러움, 죄책감]

저자의 말

10여 년의 교직 생활 동안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문학 작품을 쉽고 재미있게 창작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. 《10대를 위한 나의 첫 시 쓰기 수업》은 그렇게 쌓인 아이들의 작품들만큼 즐거운 고민과 시간이 담긴 기록입니다. 재미, 쉬움, 창의성에 중점을 두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글쓰기 수업을 만들었습니다. 시를 쓰며 얻는 상상력과 창의력은 단순히 글을 쓸 때만이 아닌 여러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박용진

서울 양정중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. 2006년 <서정시학>으로 등단했고 시집 《미궁》으로 김달진창원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.

이런 독자에게 추천합니다

-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시를 읽을 때 따분하고 공감이 잘 안 된다.
- 글쓰기는 싫지만 베스트 댓글은 쓰고 싶다.
- SNS를 보며 ‘좋아요’를 많이 받는 게시물을 올리고 싶다.
- 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.
- 미래의 크리에이터로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싶다.

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듭니다.

도서출판 다른은 2004년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260여 종의 도서를 출간했으며 대부분의 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문화체육관광부, 시교육청, 세종도서 문학나눔 및 교양부문, 책으로따뜻한세상만드는교사들, 행복한아침독서, 어린이도서연구회, 학교도서관저널 등에서 우수도서 및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.

“다른 생각이 다른 세상을 만든다”라는 믿음으로 생태, 평화, 인권, 나눔에 관한 책을 꾸준히 만들어 온 도서출판 다른은, 오늘도 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

더 많은 청소년 신간 정보와 활동지 자료를 받아 보고 싶다면?



도서출판 다른 뉴스레터
구독 신청

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면, 상상력을 키우는 시 쓰기부터

#보드게임부터 힙한 가사까지

#창의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#기발한 글쓰기

#어휘력 강화 #문장력 강화

#실제 예문 가득



10대를 위한 나의 첫 시 쓰기 수업

게임하듯 놀면서
배우는 글쓰기

박용진 지음 | 240쪽 | 14,000원



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7길 3-12 N빌딩 2층

전화 02-3143-6478 팩스 02-3143-6479 이메일 khc15968@hanmail.net

블로그 blog.naver.com/darun_pub 페이스북 [/darunpublishers](https://www.facebook.com/darunpublishers)